

보도시점 : 2026. 5. 27.(수) 06:00 이후(5. 27.(수) 석간) / 배포 : 2026. 5. 26.(화)

## 「모두의카드」 출퇴근 시차시간 혜택이 궁금하시면, 서울역으로 오세요

### 【관련 국정과제】 60.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

- 5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역에서 모두의카드 퀴즈·게임 등 이벤트 진행
- 출퇴근 시차시간 혜택 등 모두의카드 주요 내용 집중 홍보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김용석, 이하 대광위)는 5월 28일(목)부터 29일(금)까지 이틀간 서울역에서 「모두의카드」 국민 참여 이벤트를 개최한다.
-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출퇴근 시차시간 모두의카드 인센티브\*를 포함하여 모두의카드 정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높이고, 모두의카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하였다.
  - \*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출퇴근 시간 전·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 (05:30~06:30 / 09:00~10:00 / 16:00~17:00 / 19:00~20:00)에 대중교통 탑승 시 정률제(기본형) 환급률 30%p 인상
- 한국교통안전공단, 모두의카드 주관 카드사인 티머니, 신한카드, 하나카드, 광주은행과 함께 개최하며, 서울역 대합실(2층)에서 이벤트 부스를 운영할 예정으로, 행사장을 방문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.
-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모두의카드 정책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퀴즈와 게임이 진행되며, 참여자에게는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.
  - 먼저, 모두의카드 이용방법, 환급 혜택,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등 모두의카드를 주제로 퀴즈를 진행하고, 이어 ‘모두의카드 뒤집기(동일한 카드를 맞추는 방식)’ 등 게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,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경품 추첨이 이루어진다.

- 또한, 행사장 주변에서 모두의카드 주요 혜택과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,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등을 소개하는 모두의카드 홍보물도 배포할 예정이다.
- 김 위원장은 “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모두의카드 정책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참여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마련했다”며,
  - “특히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을 분산하고,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출퇴근 시차시간 모두의카드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	책임자	과 장	천재민 (044-201-5080)
		담당자	사무관	조인상 (044-201-5088)
			주무관	박영서 (044-201-5022)

